

♡♡소 식 란♡♡

선교회 특별활동

*9월 7일(수)부터 2016년도 하반기 사역이 재개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찬양 사역으로 양로원을 지켜주신 양로원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uckingham at Norwood / Wayne View / 한소망 요양원 / Oradell Healthcare /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Bergen 병원 내 정신병동

*여러분들의 후원과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창립 17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게 될 창립 18주년 음악회의 장소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June 17, 2017 at 7:30 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2016 선한 이웃 선교회 고 김명신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월 18일 음악회에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자: Daniel Kim, Ejin Hur, David Jungwon Park
장학금: 일인당 \$1500의 학습 보조비

*지난 6월 7일부터 North Bergen에 위치한 한소망 양로원의 한인 노인분들을 위해 뉴저지 한인 장로 교회 사역팀, 10명의 봉사자들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인도: 최윤혜 전도사, 반주: 안혜신 집사, 노희숙 집사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ouTube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Type 하시면 선교회 Channel로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Subscribe를 하셔서 앞으로 새로 올라오는 선교회 관련 영상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한이웃선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자선음악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
연주: 진솔(Baritone), Charles Yang(Violin), 선한 이웃 앙상블, Tomoya Aomori, 김동민 집사, 김순희 권사, 박민경 집사, 봉사자 합창단 / 장소 & 녹음 및 녹화: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포스터 & 프로그램: 전동욱 집사 / 비디오 영상: 정찬미 선생 / 과일: 정구임 권사 / 음료수: 앙상블 자모회

<음악회 후원>
서연희, 정구임, 임미영, 김학영, 손현승, 정윤아, 이수진, 정준임, 윤희주/윤정현, 송희수, 윤명현, 박광자, 신경희, Paul A. Hoelscher / Rosalie A. Hoelscher, River Church, Sooyeong Lee, Myung K / EungYoung Kim, 베다니교회, 아콜라교회, Cornerstone, 초대교회, Joy Church, Cresskill Sunrise,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 아이야구역, 고은이치과, 조셉정 산부인과, 정해양내과, Woodcrest Health Care, Main Violin, W Violin Shop, 오시환 회계사, 진고개잔치집, 앙상블 자모회, 당일 현금

*음악회 총 수입: \$29,135.00 / 총 지출: 10,487.87

*해외선교 보조: 캄보디아 장애인 지원, 아이티 학교 보조, 순회 선교

선교회원 동정

◇고국 방문 및 여행 : Arron Rhee(뿌리 교육재단), 최은정, Eilene Lee, Enoch Jo, Sarah Hwang, 고하나 학생, 고현미 집사

◇선교 *박성길 장로: Kazakhstan, 키라키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한국 선교

*지영찬, 정찬미 부부(카프카즈)
*Ejin Hur(페루 선교), Paul Yoon(과테말라), 정윤아(볼리비아), Sean Oh(Hana Mission Paterson 선교)

◇귀국: 황의정 집사(한국)- 놀우드 양로원

◇이주: *전원옥 사모(메릴랜드주)- CareOne at The Cupola

*Ejin Hur(Oregon주)- 앙상블 졸업생, 김은희 집사 가정
◇전시: 조경희 권사(미술 전시회), 2016년 10월 22~31일, Riverside Gallery, Hackensack, NJ

◇독주회: 정선분 사모, Weill Recital Hall at Carnegie Hall, July 6, 2016

◇수상: Diana Cha
1. International Grande Music Competition 1st Place
2. Metropolitan School Theater Awards

◇Music Camp
*Vianden Music Festival: 함지훈

*New Jersey Arco Youth Orchestra Summer Music Camp: Joseph Lee, Grace Kim, Jodie Suh, Paul Yoon

*Meadowmount School of Music: Daniel Seog, Andrew Kim, Esther Song

*Ithaca College Summer Music Camp: Diana Cha

후원해 주신 분들(2016년 6, 7, 8월)

베다니교회, 초대교회, 서연희, Yong K Jung
총 수입: \$3,600.00 총 지출: \$2889.74

기도란

-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하여
 - ◆ 새로 시작한 한소망 양로원 사역을 위하여
 - ◆ 선한 이웃 앙상블 졸업생들(11명)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복의 기도
 - ◆ 2016-2017 앙상블 새 단원들을 위한 기도

-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신용자
장 로 : 박성길
집 사 : 김진옥, 정준임, Brenda 조, 이송희, 김금허, 조니경, 이미혜, 김은수, 함영애, Maria Kim, Jeannie Hwang
전도사 : 니콜오, 이승진, 설국환,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최윤혜
Metro Church Member

- † 선교사를 위하여
이강휘 목사(아이티), 박성길 장로(순회선교사), 이문웅 권사, 이명옥 권사(과테말라), 박문희 집사(해외선교)

- † 건강을 위한 기도
강신여 집사(강인숙 권사 부군),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따님), 임미영 이사, 여혜숙 권사(부모) 정은영 사모, 전원옥 사모(수술 회복)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선한이웃선교회 소식지 : 주님 안에서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릴리아서 2:20)

2016년 7월 ~ 9월 / 제97호

http://www.goodneighbornj.org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3)

☞ 제 97호 뉴스레터는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 및 선한 이웃 앙상블 특집호 입니다 ☜

선 물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가 지난 6월 18일, Ridgewood, New Jersey에 위치한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버께 감사드리며 음악회를 통해 모든 선한 이웃 봉사자들을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제가 일 년 반 전에 선교회 회장이 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예전에는 선교회 봉사자로서 창립 기념 음악회를 단지 관객의 입장으로만 경험했지만 이제 책임자가 되어버린 저에게 음악회란 어렵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음을 고백합니다. 음악회가 저를 더욱 더 긴장하게 했던 이유를 돌아켜보니 아마도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음악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악회를 마치면서 저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창립 17주년 기념 음악회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음악회 장소를 바꾸나요? 새로운 장소에서 음악회를 하려면 여러 모로 힘들 텐데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마다 모든 선교회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베다니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선한 이웃 앙상블의 이수진 단장님과 김동민 지휘자님께서 다음 음악회 장소로 Ridgewood에 있는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음악 순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저로서는 장소를 옮겨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는 선교회 봉사자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며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음악회 수익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감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마다 훌륭하고 다양한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멋진 음악을 즐기다가 하면 동시에 각자의 봉사 지역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러 면으로 뜻이 깊은 음악회에서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순서로 우리의 선한 이웃 앙상블 연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앙상블이 창단된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양로원 봉사를 처음 시작하지 겨우 2년 남짓 되었을때 봉사자들의 자녀들 또한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앙상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단원들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43명에 이르는 실력과 앙상블로 자리를 잡아 주말마다 쉬지 않고 양로원에서 연주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 앙상블이 연주 할 때면 양로원에 계시는 많은 한자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들로부터 양로원에 들어온 이후 이런 멋진 경험은 처음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앙상블의 음악적인 발전보다 더욱더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 되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타인들과 경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서로 협력하여 이웃과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앙상블 지휘자님의 훌륭한 지도와 모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세심히 챙겨 주시는 앙상블 단장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가을, 올해에 있을 음악회 장소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때 앙상블 지휘자님께서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는 훌륭한 어쿠스틱스로 많은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싶어 하는 장소이며 Carnegie Hall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저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앙상블 단장님 또한 올해 11명이나 되는 앙상블 졸업생들이 그들의 마지막 연주를 이곳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앙상블 대표와 오랜 대화를 나눈 후에야 새로운 장소를 추천하시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 모두 West Side를 권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늘 열악한 환경의 양로원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좋은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앙상블 학생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더 훌륭한 연주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두 분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나누며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두 분의 깊은 뜻에 선교회 이사님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리하여 17주년 음악회는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회가 막을 내리자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는 온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느꼈던 감동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들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정준임 집사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Beautiful Endings

Out with the old and in with the new. Now that the '15-'16 year came to a close, the recent graduates are currently preparing to embark on the next chapter of their lives. Additionally, the '16-'17 season is about to kick off with new members, new pieces, new leaders, and new aspirations.

Although my time in the Good Neighbor Ensemble has finally come to an end after four years, I will never ever forget about all of the experiences, memories, friendships, and lessons that have come along with it. I will always remember the pure joy and excitement that resonated from the senior citizens after our nursing home performances. I will always remember the conversations I had with my fellow ensemble members that usually resulted in laughter. Finally, I will always remember that God has given us many gifts in life and that we were able to serve him through this ministry.

On Saturday, June 18th 2016, the ensemble had its annual benefit concert. Looking back in hindsight, the performances of the orchestra, seniors, Sol Jin, Charles Yang, and the choir, were all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ensemble set the concert in a jubilant mood with "Tonight" by Leonard Bernstein and "Waltz No. 2" by Dmitri Shostakovich. Then, the audience was taken away by the soloists Sol Jin and Charles Yang. Baritone Sol Jin expressed his powerful and melodious vocals in "Di Provenza" and "Cavatina". Violinist Charles Yang left the audience in awe through his passionate interpretation of the Saint Saens violin concerto, as well as his charm in his very unique special presentation.

Next came the piece performed by the '15-'16 seniors. We played "Merry-Go-Round of Life" by Joe Hisaishi from the movie Howl's Moving Castle. I first had the idea of arranging this particular piece in July 2015, when I was busily studying away at the library for those horrid standardized tests. I was taking a break and decided to listen to music to relieve the stresses of being a rising senior. But then I came across a recording of this song, and after hearing the first twenty seconds of it, I immediately knew that we would perform it, albeit being extremely unconventional compared to the senior pieces of previous years.

The seniors did an amazing job, and our performance was emotionally rewarding and my personal favorite part about the entire concert. However, the concluding performances consisting of both choir and orchestra were quite spectacular as well, since all of the parents and children were creating music together in the ever so beautiful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in Ridgewood.

벼랑의 별

벼랑에 서 있을 때 별은 더욱 눈부시다
높은 절벽 앞에 서면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벼랑은 절망의 끝
질펀하게 울고 난 뒤
새처럼 털고 비상하는 비련의 악장이다
한 발을 낭떠러지에 내딛었을때
질기디 질긴 아우성을 보라
만질때마다 피가 묻어나오는
균열의 시간들
그대는 이미
죽음보다 견고한 상처를 만진 것이다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제 이름과 마주친 것이다

벼랑에서는 모두가 소리가 된다
너도 소리가 되고
나도 소리가 된다 별빛
가지 흔드는 삼나무 숲처럼
스스로 묻는 자는 길을 찾는다

허공을 떠돌던 불빛이 집을 지을 무렵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들녘의 별이었던가

벼랑에 서 있을때 사람들은
눈동자처럼 깊어진다
제 몸에 흠을 파고
수령을 내려 놓은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서 본 자만이
거친 능선을 돌아온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어둠을 흔드는 별이 될 수 있다

김 은자 권사/시인

I'd like to thank the Good Neighbor Ensemble for the many opportunities that allowed me to utilize my musical talents for a greater cause. I will always look back upon this time when I was in this ensemble with positivity and nostalgia. I truly hope that GNE will become even bigger and better in the years coming forth, and I wish everyone who was and still is a part of this ministry all of the best! :)

Hannah Ko/Good Neighbor Ensemble
Columbia Univ.

♡♡소 식 란♡♡

선교회 특별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로원 예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월: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 Buckingham at Norwood.....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권사(색소폰)
-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 ◇화: Sunrise of Cresskill..... 조미경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이문웅 권사(색소폰)
-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View... 이예리사 사모 인도, 신은혜 집사 반주
-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Maria Kim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안혜신 집사 반주
- ◇수: Sunrise at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터 양 전도사 설교, 최성아 집사 반주
- County Manor Rehabilitation..... 김금화 집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권사(색소폰)
- Buckingham at Norwood Care..... Jeannie Hwang 선생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 ◇목: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유주영 집사 반주, New Milford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 Buckingham at Norwood Care and.... 박경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Rehabilitation Center, 은혜 양로원
-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김금화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Rockleigh 최수현 집사 반주
-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박미경 집사 반주
- Oakland Rehabilitation & 함영애 집사 인도, 한자경 집사 반주 Healthcare Center
-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권사(색소폰)
- ◇금: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박경옥 권사, 신용자 권사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16년간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길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 통로로 사용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 Scholarship Awards
- Mail to :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Debor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총수입: \$9,450.00 총지출: \$4,500.00(장학금 수여)

◇◇ 선한이웃 선교회 행사 일정 ◇◇

- 7월 5일(화): 선한이웃 선교회 이사회
- 8월 6일(토): CareOne at Valley, Westwood, 2:00 pm
- 8월 13일(토): Oradell Health Care Center, 2:00 pm
- 8월 20일(토):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2:00 pm
- 8월 27일(토):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View, 2:00 pm
- 9월 17일(토):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Rochelle Park, 2:00 pm
- 9월 29일(토): 뉴저지 한인회 주석 대찬치 5:00 pm
- 10월 4일(화): 선한이웃 선교회 이사회
- 10월 9일(일): Sunrise of Paramus, 11:00 am
- 10월 5일(토): County Manor Rehab. And Healthcare, Tenafly, 2:00 pm
- 10월 29일(토):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Englwood, 2:00 pm
- 11월 12일(토):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2:00 pm
- 11월 26일(토):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2:00 pm
- 6월 17일 2017년(토): 선한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7:30 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My Dearest Aunt, Myung Shin Kim'

When I first told Michael I was visiting, I didn't expect him to take me to a concert. Imagine my surprise when I was told that the ensemble playing at the concert was the ensemble my aunt used to conduct!

Growing up, I never really had the opportunity to talk to my aunt. After all, I am not fluent in Korean, and we lived on different coasts of the United States for most of my life. Yet, every time my family and I visited my aunt in New Jersey, I could feel her love pouring out for God, her children, her work, and for me. In fact, each time we saw her, she always made sure to give me and my siblings gifts. Once, as a young teenager, she gave me a long, black necklace. The necklace was not the type of jewelry I liked, so I complained to my mother. After a period of silence, my mother gently chastised me:

"Faith, your aunt gave you more than a necklace. She took time and effort, and picked it out of love. Can't you feel her love?"

I never complained about receiving another of my aunt's gifts again.

On June 18, I was once again on the receiving end of my aunt's love. Each performance at the Good Neighbor Ensemble 17th Anniversary Benefit Concert was absolutely wonderful, and I could see how much work my aunt had poured into building such a strong group of young musicians. When the recap video played and my aunt's voice and face appeared on screen, I immediately felt her love for God and the ensemble. Closing my eyes, I was taken back to the memory of my mother chastising me: "Can't you feel her love?"

The video finished playing and the ensemble began to play again. I opened my eyes and firmly thought, "Yes, I feel her love." After all, here was a symphony playing out her love to me. And in that moment, I knew that my aunt's love would be heard by many more.

Thank you for such a wonderful performance, Good Neighbor Ensemble!

By Faith Chung / New York

우리는 이미 하나...

'2016 RIO OLIMPIC 이 시작되었다. 각 종목의 경기들이 메달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고 그것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환호한다. 도전에 실패한 이들을 보며 아쉬워하고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부상당한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힘겨운 인내의 결실을 맺은 승리에 마치 나의 일인 양 기쁨의 감격을 느낀다. 내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들이지만 'KOREA,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이다.

'GNE, 선한이웃선교회...' 이것을 그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무리한 것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름 안에서 느끼는 자부심, 자존감, 동질성... 매주 만나 소리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한 팀이 되어가고 우리가 맞춘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자부심을 느끼며 그 연주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환한 웃음을 머금은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가슴 뜨겁고 벅찬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인 것이 아닐까?

좋은 경기를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와 책임감 있는 리더들, 능력 있는 선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화합해야 하듯 GNE의 모습이 이러하다. 누구보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지도해 주시는 지휘자님과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무서운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리더 집사님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노력하는 우리 단원들... 이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작품들은 이미 그 과정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김명신 권사님의 눈물어린 기도와 헌신이 땀방울로 일궈 주신 텃밭 위에 우리 아이들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며 귀한 열매들을 맺어간다. 아직은 초실에 불과하지만, 이 모임에서 감사와 열정과 감격을 느껴본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들이 성장하여 세상을 위한 더 크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거라 감히 확신해 본다.

2016년 졸업생 학부모 김은희



<Good Neighbor Ensemble / CareOne At Valley at Westwood>

Good Neighbor Ensemble

Good Neighbor Ensemble was founded in March of 2002 by the volunteers of the Good Neighbor Ministry. The eleven original members were middle-school aged children of these volunteers, who were gathered together and led by music director Jina Choi in order to perform classical and religious music for the lonely residents of local nursing homes.

After its maiden concert at the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in April of 2002, the ensemble has gone to perform at twenty nursing homes located throughout Bergen and Passaic county every month.

The Ensemble not only performs for the residents of these New Jersey nursing homes, but for churches and local organizations as well, including the Riverside church, New York, United Methodist Churches in Englewood, Hillsdale, Paramus, Wayne, and the yearly event of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Jersey.

In addition, the ensemble performs in an annual charity event. In past years, performances have been held to raise funds to support starving children in North Korea, victims of the tsunami in both Indonesia and Japan, the disabled poor, North Korean orphans who have become refugees in China, and orphans of Haiti.

The Ensemble is led by Conductor Dongmin Kim and includes over 40 musicians on the violin, viola, cello and flute. These dedicated members rehearse every Tuesday, and perform at nursing homes twice a month to spread joy and comfort through their music.

Soojin Lee
Director of Good Neighbor Ensemble



<Good Neighbor Ensemble was invited to 2016 Time Square Hansik (Korean Food) & TaeKwonDo Festival/New York>

☺ 선한이웃 선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음악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